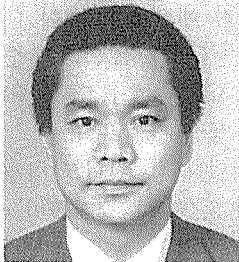


# Audio 産業의 발전을 위한 提言



曹 熙 宰

(株)金星社 Audio 事業部長 / 理事

수출의 경우  
CD 플레이어를 위시한  
신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품질향상에 힘써 국산 오디오 제품의  
이미지를 시급히 개선하고 부품 국산화에  
전력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오디오 제품의 공급 기지화되고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金星社에서 처음으로  
진공관식 라디오를 生産하기 시작한 1958年부  
터 시작되었다. 戰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  
태에서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도 못했던 일을 개척자 정신에 불타는 소수의  
技術者와 企業家에 의해 시작된 것이 바로 우  
리나라 Audio 産業의 시작이었으며 그것이 곧  
電子工業의 出發이었던 것이다.

그 후 전화기, 카세트 녹음기, TV, 냉장고  
등 각종 전자, 전기 제품이 정부의 경제개발계  
획과 맞추어 꾸준히 성장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Computer, VTR, 반도체, CD Player 등  
최첨단 제품으로 발전되어 이제 電子工業에 있  
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  
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 電子工業을  
유발시킨 Audio 産業의 실상은 어떠한가, 물론  
Radio에서 시작된 Audio 産業도 최근의 CD  
Player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기술 발전을 계속  
하였고 또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로 수출되어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Audio 産業은 몇가  
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이 힘들  
것이므로 여기서 Audio 産業이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新製品 · 新技術의 開發

산업계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요  
즈음처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랐던 적도 없  
었으며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新技術 · 新製品  
의 개발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Audio 産業은 주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조립  
기술 향상에 치중되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高  
價品보다는 우선 수출이 손쉬운 廉가 보급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따라서 海外市場에서 한국산  
Audio 제품의 Image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



신제품의 탄생에는 반드시 새로운 부품의 개발 및 사용이 필수적이다.

했던 것이다. 게다가 국내의 임금은 점차 상승하고 저임금 국가의 추격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단순 조립 생산만으로는 이미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감이 있다.

그런데 82년 10월부터 일본에서 出市되기 시작한 CD Player를 시작으로 새로운 Audio 기술 즉 Digital Audio 기술이 점차 일반화되고 모든 Audio 제품으로 기술 확산이 되면서 Audio 기술은 종래의 Analog 기술에서 새로운 Digital 기술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재빨리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에서 3번째로 CD Player를 생산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한국산 Audio 제품의 Image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이 CD Player는 出市된 지 4년만인 내년 가을에는 기존의 LP Player의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휴대용 등 다양한 용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업체끼리의 불필요한 과당 경쟁으로 가격 불리를 자초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다양한 Model의 개발, 품질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국내 Audio 제품의 Image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CD Player에 이은 유망 신제품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내년 가을에 出市될 것으로 예

상되는 기존의 CST에 대응되는 DAT(Digital Audio Tape Deck)도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2. 部品の 國産化

앞서 언급한 新技術·新製品의 개발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써 부품 국산화의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제품의 탄생에는 반드시 새로운 부품의 개발 및 사용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했을 경우 그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기존 Audio 제품의 경우도 처음 Radio를 생산한 지 27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제품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80% 정도의 국산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사이 부품 국산화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결과라 생각한다. 부품 국산화의 추진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은 국내 부품업체가 대체로 영세하여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경제단위가 적어 충분한 물량확보가 어려운 점이 아닌가 본다.

금형기술이나 도금기술 등 기초기술에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제품의 깔끔한 외관과 산뜻한 마무리 손질이 가능할 것이고 더욱이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는 Laser 기술, 광학기술, 초정밀 가공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

어 더욱 더 많은 기술개발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품업체와 세트업체가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세트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부품업체에 전수하고 부품업체는 부단한 품질관리 활동으로 Cost Down과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세트업체가 공동으로 부품을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韓國電子工業振興會를 보다 활발히 이용하는 방법과 Project에 따라서는 연구조합 등을 결성하여 업계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3. Software산업(음악산업)의 활성화

Audio 산업은 Software 산업 즉, 음악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Audio 제품을 평가할 때 여러가지의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原音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Audio 機器라도 음원 자체가 나쁜 경우는 양질의 음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불만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CD를 제외하면 음원으로써 방송, Tape, 음반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방송을 제외한 Tape, 음반 산업을 좁은 의미의 음악 산업이라 할 때 국내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불법, 저질 Tape 및 음반이 일소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로 양질의 음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신제품인 CD Player 용의 Disc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발매 당시 꿈의 Audio라 불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원음을 재현시키는 CD Player인 경우 외국에서는 급속도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出市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보급속도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고가인 점도 있지만 Disc의 입수가 용이치 않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국내 제작 Disc가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 Disc의 국내 생산에는 약 100억원 정도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생산이 될 때까지는 현행 40%인 도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음반 업체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이 도입,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Disc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D Player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Audio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4. 結言

외국의 예를 보면 Color TV의 보급, Audio (Hi-Fi)의 보급, VTR의 보급 등으로 가정용 기기의 보급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Audio 제품의 보급이 기대되는 시점에 Oil Shock에 따른 경기 불황과 또 Color TV의 방영, VTR의 발매 등으로 Audio 제품의 보급이 주춤했다. 다행히 지난 해 단행된 Audio 제품의 特消稅 인하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86, '88 양 대회는 내수, 수출 모두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CD Player를 위시한 신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품질 향상에 힘써 국산 Audio 제품의 Image를 시급히 개선하고 부품 국산화에 전력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Audio 제품의 공급 기지화되고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